

희귀 조선불화 1세기 유랑 마치고 귀향

국외문화재단, 7일 공개... 18세기 추정 희귀작 평가

일제 때 유출돼 美·日 떠돌다
2차대전 종결 당시 적산 처분

아난·가섭존자가 전면 부각돼
마치 대화하는 듯 극적 표현
"섬세함 등 보기 드문 수작"

석가모니의 설법 장면을 기존의 표현 방식과는 달리 파격적인 도상을 보여주는 희귀 조선불화가 1세기의 유랑을 마치고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국외소재문화재단(이사장 안휘준, 이하 '국외문화재단')은 1월 7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사진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증방식으로 돌려받은 미국 버지니아 허미티지박물관 소장 조선불화를 공개했다.

이번 국외문화재단이 공개한 조선불화는 18세기에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보로 크기는 318.5cm×315cm, 비단에 채색됐다. 조선불화 전문가들은 석가모니 부처의 광배나 대의(大衣)의 문양 등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의 양식이고, 삼존의 구도나 보살의 표현(보관과 영락장식)은 1731년에 제작된 송광사 응진전 '석가모니불도'와 매우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1730년대를 그 제작 시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도상의 형식은 일반적인 조선불화와는 차이가 있다. 아난 존자와 가섭 존자가 석가모니 부처의 좌우 상단부에 작은 모습 등으로 묘

사된 기존의 것들과는 다르게, 두 인물이 석가모니 부처의 하단 전면부에 크게 부각되어 서로 대화하듯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화전문가인 정우택 동국대 박물관장은 "불화 중 아난과 가섭존자가 대화하는 듯한 모습은 최초의 사례로 미술사적으로나, 불교사적으로나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며 "1730년대 불화로 이후 불화양식에 선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회귀된 조선 불화는 일제 강점기 국내 어느 사찰에서 무단으로 뜯겨져 일본으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반출 후에는 일본의 미술품상 '아미나가 상회'에 넘겨졌다. 이후 일본에서 보수된 후 미국 내 미술관 및 미술품 시장을 떠돌았다. 방치된 불화가 반환될 수 있던 것은 2011년 버지니아주 박물관 협회가 '위협에 처한 문화재 10선'에 선정되면서부터다.

국외문화재단이 2013년 5월 초 조사 작업 중 버지니아 박물관 협회가 올린 관련 유튜브 영상에서 이 불화를 처음 발견한 것이다. 재단은 불화의 학술적 가치와 반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반환을 추진했다.

국외문화재단은 "일본 아미나카 상회 미술품 상당수는 국내에서 불법 유출된 만큼, 향후 미국 정부가 압류한 아미나카상회 경매 목록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일·노덕현 기자



국외소재문화재단은 1월 7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사진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증방식으로 돌려받은 미국 버지니아 허미티지박물관 소장 조선불화를 공개했다.

조계종, 올해 국고보조금 361억 원 책정

작년 대비 소폭 감소

조계종이 전통문화 전승 등 불교 문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361억7000여 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총무원이 1월 10일 밝힌 '2014년도 종단 관련 국고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338억 6000여 만 원, 문화재청으로부터 23억1000여 만 원 등 총 361억7000여 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직접 개별 사찰에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한 것으로 지난

해 대비 9억4000여 만 원이 늘었다. 하지만 지원사업 가운데 총주 석조사 내 명상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직접예산 10억 원이 포함돼 있어 실제 종단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보다 6000여 만 원 감소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은 호국불교의승군기념관 건립, 사찰 등 문화재다량소장처 보존관리 등 2건으로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다.

지속 사업은 △템플스테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근대 한 국불교 대표문헌 영역 편찬사업 △호국불교사업 △연등회 △사자아가

이브 구축 △청소년 마음등불 △전통사찰 전수조사 △10.27법안 기념사업 △전국 금석문 조사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스페셜 조사 및 정비 등 15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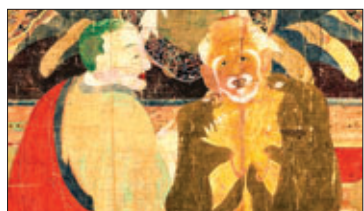
이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템플스테이 예산으로 지난해와 같은 195억 원이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비해 10억 원이 감소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이 지속적으로 요청한 전통사찰 전수조사는 지난해에 비해 5억 원이 인상된 6억 원이 배정됐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18세기 풍속화 영향 받은 듯"

아난·가섭 존자가 부각된 이유



환수된 석가삼존도 중앙아래에 배치된 아난(사진 왼쪽)과 가섭존자.

국외소재문화재단(이사장 안휘준)에서 환수해 1월 7일 공개한 조선불화 '석가삼존도'는 도상학적으로 매우 특이하다.

안휘준 국외소재문화재단 이사장은 "아난존자와 가섭존자를 불화에서 이 작품처럼 부각시킨 것은 이 시대 동북아시아를 통틀어 이 불화뿐"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부처님의 두 제자를 클로즈업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단원과 해원

의 풍속도에서 연상할 수 있는 것처럼, 실존했던 제자들을 불화 전면에 등장시키는 것은 18세기 실학적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덕현 기자

수행력의 상징 最高 법계 대종사 품서

세민·정련·지성·대원·성파·성우 스님 받아

종단 최고의 법계(法階)이자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인 대종사(大宗師) 법계가 품서됐다. 대종사 법계 품서는 지난 2004년, 2008년,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월 7일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세민·정련·지성·대원·성파·성우 스님에 대한 품서식과 신년하례 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진제 스님은 이들 스님들에게 직접 법계증과 가사를 수여했으며 자승 스님이 세민·정련·지성·대원·성파·성우 스님에게 불자를 봉정했다.

진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명덕(明得)하야사 제불조사로 동참해 천상인간에 대자유인이 되리라"면서 "모든 사부대중은 대중사들을 여불(如佛)로 잘 받들지어다"라고 설했다.

세민·정련·지성·대원·성파·성우 스님은 대종사 법계 품수 후 발원문을 통해 끝없는 정진을 다짐했다.

대종사 법계 품수를 받은 세민 스님은 1966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

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와 서울 조계종 원로의원 소임을 맡고 있다.

동국대 이사장 소임을 맡고 있는 정련 스님은 1968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조계종 포교원장을 역임했다. 지성 스님은 1976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초심호계위원, 법계위원, 능인학원 이사, 은해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대원 스님은 1962년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현재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과 원로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1970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한 성파 스님은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영축학원 이사장과 원로의원에 있다.

BTN불교TV 회장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성우 스님은 1967년 해인사에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호계위원과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대구 동화사=신종일 기자



조계종은 1월 7일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대종사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세민 스님이 종정 진제 스님에게 대종사 법계증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2014 연중기획

'행복으로 가는 길-탐·진·치 줄이기'

불교의 최종 목적지는 '열반'에 이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으로 '탐·진·치'를 줄일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탐·진·치를 줄일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본지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2014 연중기획으로 '행복으로 가는 길-탐·진·치 줄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매월 1회 '탐심 줄이기-더 나누자' '진심 줄이기-더 낮추자' '치심 줄이기-더 비우자'를 실천하는 현장과 인물을 취재해 불교로 행복해지는 생생한 수행지침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9월 중 '탐·진·치 줄이기'에 대한 **신행 수기를 공모**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추후 공지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바랍니다.

삶은 고통이 아니다

다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롭게 한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애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르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계승·선화의 집대성
-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금강경(독송용)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천수경(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